

#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들, 35과, 이사야, 주요 본문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강의인 이사야서 핵심 본문 강의 35강입니다.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의 말씀을 합시다. 오늘 우리는 당신 앞에 나아가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이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납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심장을 계속 뛰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고 경각심 있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를 당신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부르심에 경탄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이끄시고 포도원에서 우리를 배치하기 원하는 다양한 장소를 주신 동일한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장소 중 일부는 인생에서 잠시 멈추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백성의 연대기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빠지고 다른 많은 도전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을 읽을 때 용기를 얻도록 도우소서,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이는 과거에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고든 너머의 미래. 이에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몇 가지 기억해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6일 월요일 2시 30분에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그렇게 말했음을 명심하십시오. 강의 계획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2시 30분이 됩니다. 강의 계획서에 표시된 대로 4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의 모든 읽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룰 강의자료는 오늘부터 이사야 6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기말고사에서는 과목 종합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번 학기 전체 경험에서 다양한 주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수업을 마지막으로 강의 평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야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부 본문을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다양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해석적입니다.

그 중 일부는 텍스트입니다. 그 중 일부는 실용적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설교적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역사적입니다. 나는 지난번에 사해 두루마리가 이사야서의 몇 가지 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전반적인 그림을 강화했습니다. 즉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체 히브리어 구약성서(서기 1010년)보다 천 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텍스트상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는 엄청난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손으로 복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사 과정을 통해 텍스트의 본질적인 순수성, 텍스트의 무결성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과 동일합니다. 특히 AJ Gordon과 관련된 찬송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J 고든(AJ Gordon)은 두 편의 찬송을 썼는데, 그의 덜 인기 있는 찬송 중 하나는

이사야서 33장 17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찬송가에 가면 <The King in His Beauty>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33:17에서 따온 것입니다. 네 눈은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것이며 땅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즉 바로 앞 장, 예를 들어 3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그는 메시아 시대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의로운 왕을 얻을 때이고, 그때가 바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내 추측으로는 문맥상 이 왕과 그의 아름다움은 아마도 메시아 시대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그곳이 문자 그대로 먼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NIV가 말한 것처럼 멀리 뻗어 있는 땅. 모든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것은 메시아의 보편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스가랴 14장 9절에서는 그가 온 땅의 왕이 될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지가 멀리 뻗어 있다는 생각은 적이 점령한 땅의 현재 상태와 비교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참고 자료 중 일부는 빠르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는 35장 3절에 히브리어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은 이사야 35장 3절을 인용합니다. “약한 손에 힘을 주고 굽은 무릎을 굳게 하라.

이사야 시대에는 원수가 문 앞에 닥쳐와서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앗수르가 실제로 멸망한 때는 이사야의 통치 기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의 통치는 약 680년까지 이어지며, 그보다 20년 전인 701년에 그가 남왕국, 특히 유다를 모두 멸망시켰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가라앉고 무릎이 덜덜 떨릴 때 이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지라는 이 격려, 그것은 주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 절인 35:4에서 읽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격려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오다. 이는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해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세요. 이것이 성경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에게서 대조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공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자 신의 대답입니다.

한 지역 랍비가 고든 학생들에게 말했듯이,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것이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잠재적인 아시리아 침공을 고려한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38:19에서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역설 때문에 신약성경의 그리스어 단어를 사용하거나 히브리어 성경의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마소라 (Masorah)를 사용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그것은 집집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진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신약성경의 파라디도미(paradidomi)는 전달하다, 전수하다, 전달하다, 전달하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구전 전통은 우리 유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1450년대까지 인쇄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것은 라틴어로 된 서투른 구텐베르크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책이 부족하고 원고만 있기 때문에 구전 전통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서 세대를 거쳐 진리를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성을 제안합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신실함과 에메트(emet)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확신을 갖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이 과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 졌습니다. 그는 충실했습니다.

그는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히브리어 성경의 첫 단어, 중간 단어, 마지막 단어인 이 에메트(emet)에 숫자를 어떻게 매겼는지 기억하세요. 그들이 표시하는 매우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것, 에멧. 그러므로 진실은 당신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Emet은 때때로 진실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세대를 거쳐 집집마다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충실한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달합니다. 바울이 4대에 걸친 교사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따르면, 이것이 가능한 최고의 가르침의 천재성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았고, 또한 충실한 증인이 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40장 6절과 8절에서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일시적인 본성과 대조됩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은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럽고, 빠르고, 덧없고, 지나가는 삶의 본질을 다루는 시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나 사람은 흠으로 돌아가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흠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죽음의 잠 속에서 사람들을 휩쓸어 가십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이 점에 대해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과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히브리어 성경의 저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대조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은 모든 사람이 풀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쓴 이 시편에서 말한 대로 그것들은 들꽃처럼 영광스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40장 8절.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인 신앙 여정의 일환으로 성경을 가르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기 주문 요리사를 본다. 나는 언젠가 철거될 집을 짓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가치가 매우 짧은 다른 종류의 직업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룰 때 그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영원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일시적인 것과 약점이 있습니다. 전도서의 키워드 중 하나인 코헬렛은 hevel 입니다. Chevel은 추운 아침에 당신의 숨결입니다.

허무(vanity)라는 단어가 때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덧없는 것, 지나가는 것,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유대인 친구들은 장례식을 할 때마다 시체를 묘지로 옮길 때 'hevel'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생명은 우리에게 비하면 꽃과 같고 풀과 같으나 빨리 시들어 죽느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희망을 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상수훈(마태복음 5장 18절)의 일부입니다.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0장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성경에서 구두점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40장에서 시작되는 Nachamu , nachamu , ami , 위로하라, 나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파라켈레오(Parakeleo)는 격려와 위로의 의미로 함께 사용됩니다. 그리고 3절의 선포는 물론 신약성경 세 복음서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세레 요한입니다.

여기에는 세레 요한에 대한 힌트가 없습니다. 요한은 그에게 예언적인 목소리를 가졌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한 학기 내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했던 일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 시 40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의 음성, 부르시는 분, 부르시는 소리, 광야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또는 병행구절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곧게 하라는 것인데, 이는 아마도 고대 근동의 군주가 그 준비를 했음을 암시합니다.

거친 부분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만듭니다. 만약 교황이 브루클린에 목회를 하러 온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집의 일곱 계단을 올라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능한 한 매끄럽게 처리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한복음 1:23, 마태복음 3:3, 마가복음 1:3의 구두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요한이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다. 그리고 나서 인용문이 시작되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 신약성경의 인용문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사야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때때로 구두점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신약성서의 저자들이 구약성서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구약성경 본문을 취하여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의 전쟁 외침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시대에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장 또는 그 어느 곳에서나 등장합니다. 거기에서는 내 기억이 나에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행위 논란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한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하박국의 즉각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의 부름은 바벨론이 당신의 문앞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충실하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의지, 확고하고 확고한 헌신. Emunah에 의해 라이브.

그것이 당신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Paul이 와서 그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요점은 작가가 인용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선입견이나 기계적인 사전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기말 논문을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작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뉘앙스를 만듭니다. 가끔은 직설적인 인용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매우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존은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여기에 오셔서 큰 사건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죄를 회개케 하는 의의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다 광야에 있었으나 요단 골짜기로 올라왔더라. 그곳이 바로 그가 세례를 받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준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르단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미크바 사람인 그가 물에 잠겼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drop in a bucket'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 중 일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40장 15절).

나라들은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에 대해 정하신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들의 조언이나 사람의 조언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연설에 성경을 포함시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대개 신약보다는 구약에 빠져들곤 합니다. 나는 Lyndon Baines Johnson이 대통령에게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을 인용했습니다. 그 기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히브리인은 말합니다.

나는 어리다. 나는 나갈 줄도 모르고 들어갈 줄도 모른다. 이 백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1972년에 닉슨과 맥거번이 대선 경선을 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McGovern의 연설에서 그가 이사야 40장 31절을 포함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네세르 처럼,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솟아오를 것이다.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걸을 것이며 기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성경인 알라, 그 생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행이다. 달리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행을 위해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조부모님이 계시고 일부는 증조부모님이 계십니다. 노년기에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가족 중 노인에게 또는 요양원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훌륭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내가 그니라. 나는 너를 지탱할 그 사람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안고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여행 중에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 쇠퇴할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년에 대한 격려적인 희망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에 관심이 있으며, 이사야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흥미롭습니다.

어느 나라로 갔던 윌리엄 캐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도. 윌리엄 캐리. 54장 2절에서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제화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구절은, 이 앞 구절로 돌아가면 예루살렘은 여기서 유목민의 천막, 유목민의 천막에 사는 여인으로 묘사되거나 상징됩니다. 이 장은 결국 미래의 시온의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여기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천막 휘장을 널리 펴며 아끼지 말고 네 줄을 길게 하며 네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한다.

자, 확대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은 많은 마일리지와 많은 돈을 얻은 야베스의 기도와 비슷하게 들립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보셨나요? 크게 생각해. 크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성경의 모든 부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장막에 사는 여인으로 상징됩니다. 이것은 자손, 즉 영적인 자손이 멀리서 올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영역인 메시아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구성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항상 단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 종교였습니다. 그것은 내다봤다.

지난 세기 중반의 위대한 유대인 학자 중 한 명인 사무엘 산드멜 (Samuel Sandmel)은 기독교에 관해 저술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선교적 충동은 초기 유대인의 선교적 충동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시작하여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이사야가 말한 대로) 해변들이 당신의 율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특별한 언약에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당신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당신의 씨를 통해. 그래서 이 확장된 천막,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천막의 일부로 볼 수 있고 가족이 성장함에 따라 천막에 천막을 추가하면 새로운 부분을 꿰매어 모든 사람을 천막 아래에 둘 수 있습니다.

글쎄요,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각을 했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도록 촉구받은 것처럼, 5절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온 땅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기에 갈망하십니다. 복음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방법 중 하나가 55장 1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이 무료이고 은혜도 무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에 사용된 일부 그림과 그림은 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5.1은 특히 늦봄과 여름철에 사람들이 탈수되는 반건조 기후의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물 저장고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물 장수인 사람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오라 그러나 이 물 장수는 다릅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사거나 먹어라.

여기에 다른 물건도 있어요. 사실, 나는 좋은 것을 얻었습니다.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할라브와 우유를 사라.

여기서 그가 예루살렘 거리의 친숙한 장면과 물 파는 사람의 일상 생활 장면에서 시작하는 강조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는 영적 갈증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왜 빵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에 수고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가장 풍성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사야 합니다. 왜? 잠언에서 말했듯이 금으로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여기 사진은 물 판매자가 30분 동안만 만족시켜주고 나면 다시 목이 마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주시는 영적인 목마름, 곧 요한복음의 생수는 다른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목마른 자를 초대하는 것은 생명수로의 초대이며, 포도주와 젖은 풍요 등을 상징합니다. 다른 몇 가지를 빨리 언급하고 싶습니다. 56.5,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고,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야드 바셈(Yad Vashem)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아름답고 새로운 첨단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6장 5절의 기념과 이름이라는 단어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드(Yad)는 히브리어로 손이라는 뜻입니다. 야드.

야드는 어떤 모습인가요? 그것은 마치 묘지에서 볼 수 있는 동근 기념물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념관으로 번역된 이유입니다. 그것은 기념물 기념관이고, 홀로코스트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야드 바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사람들과 그들의 명성과 같았습니다.

같은 장에서 두 구절을 더 읽으면 세상에 있는 더 많은 회당 문에 쓰여 있습니다. 이 구절이 다른 어떤 구절보다 더 많은가요? 사실 이 구절은 신약성서에도 인용되어 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사 56:7) 이는 아무도 너희를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도의 집인 Bet Ha-Tefillah가 될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신약을 공부할 때 구약의 성막에서는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헤롯 성전을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뜰이 있었는데, 이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성전에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줄 뿐입니다.

그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가 고든 학생들과 함께 회당으로 많은 여행을 갔을 때, 저는 항상 여러분이 회당에 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구절을 꺼내서 그 구절로 티켓을 편칭하는 것뿐입니다. 유일한 예외는 매우 혼잡하기 때문에 티켓이 필요한 성수기 기간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나와 함께 회당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마다 오닉 안식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곳이 단 한 군데 있습니다.

Oneg Shabbat, Oneg, ONEG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Onik Shabbat는 성경의 한 부분에서 나오며, 그것은 58:13입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요일 저녁 모든 회당에는 토라 낭독 예배 후에 오닉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친목 시간을 언급하고, 다과를 나누고,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고, 때때로 연설자나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고든 학생들이여, 저는 지역 회당에서 오닉 안식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적어도 12년이 걸렸습니다. 안식일을 지루한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로 만든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58번째 장에 몇 가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훌륭한 장이며, 불의와 억압, 배고픈 자, 노숙자, 헐벗은 자에 대한 돌봄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내 말은,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구약 성경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크고 마지막 정리인 마태복음 25:31-46에서 여기에 나오는 언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갖는 일들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제사장 종교, 단식, 예언 종교, 행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때로는 둘 중 하나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맥락에서는 물론 둘 다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블라랜드를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옥수수와 포도주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랜드. 당신 세대의 찬송가 가사를 듣는 방식에 있어서 예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 합창단은 그만큼 훌륭하고 반복적입니다. 이는 셈족이므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용,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성경적 암시, 성경 구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블라랜드는 어디에 있나요? 바알 은 히브리어로 결혼을 뜻합니다. 그리고 불라는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62장 4절과 5절을 보면 시온은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위하여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점령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곳이 황폐하고 황폐하였더니 헵시바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리라. 어머니는 딸이 있으면 헤피나 헵시바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여성스러운 이름이에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을 의미하며 나의 기쁨은 그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땅은 불라(결혼한 땅)이라 불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온은 이제 불륜의 죄를 지은 배우자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1부터 39까지의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들은 희망을 가져다 주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격려적인 장들입니다. 심지어 이 책 64장 8절에 나오는 바울의 영향에도 우리는 진흙이요, 당신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바울조차도 선지자들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릇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 우리는 진흙이고 당신은 토기장이입니다. 정말 멋진 의인화라고 생각합니다.

헤셀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각 예술 작품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성형성, 유연성, 유연성이 핵심입니다.

나에게 이것은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는 Gordon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한 훌륭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잠언의 소 학습자, 문자 그대로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하게 번역하면, 가르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융통성이 있는 사람, 실제로 학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평생 동안 머물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점토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면 배움이 일어납니다. 평생 선고입니다.

당신은 집중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처럼 매일 새로운 재주를 배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앙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지자 과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로 마치겠습니다. Kevin은 강좌 평가를 신속하게 수행할 예정이며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모든 것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강의인 이사야서 핵심 본문 강의 35강입니다.